

올 봄 A형 간염대란 예고... 간 전문가 조선대병원 김만우 병원장에 듣는다

“음식물로 감염... 20~30대 예방접종 서둘러야”



“피 검사를 통해 A형 간염 항체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항체가 없으면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최선 방법입니다.”

몸살·감기와 증상 비슷

특히 영화배우 문근영씨 등 연예인들의 감염이 잇따르면서 학부모들 사이에 신종플루에 이은 막연한 공포마저 확산되는 분위기다.

서 자란 탓에 항체가 생기자마자 감염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흠을 만지며 유년시절을 보낸 40~50세 이상에서는 면역력이 형성돼 비교적 안전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A형 간염은 주 발생 연령이 20~30대이며 일단 감염되면 직접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증상에 알맞은 대응과 2개월 내외의 휴식 및 영양분 섭취가 필요하다.

김교수는 “A형 간염은 비교적 장기 치료로 인해 손실도 크지만 일부 환자는 전격 간염(급성 간부전)이 발생하며 천명 당 한 명 정도가 사망할 정도로 사망률이 높다”면서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A형 간염은 바이러스성 간염의 하나로 소화기를 통해 감염되는 급성 질환으로 감염 후 2~6주(평균 4주)의 잠복기를 거치며, 약 1주일 정도 감기와 유사한 증상(두통, 발열, 오한, 관절통 등)과 식욕부진, 구역질과 구토, 진한 소변 등이 나타난다고 특징을 설명했다.

간염의 초기 증상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스스로 몸살이나 감기라고 생각해 약을 먹었는데 전혀 효과가 없고, 소화가 안 되고 울렁거리는 증상과 소변 색깔이 짙어지면 A형 간염을 우려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주 손 씻고 날 음식 삼가야

김교수는 “A형 간염은 오염된 음식물에 의한 감염이므로 주로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서는 10대 이하에서 감염, 증상 없이 자연 치유돼 면역력을 갖게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면역력이 없어 20~30대에 발생위험이 높은 만큼 예방백신을 접종(2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A형 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누로 손을 자주 씻어야 하며, 채소나 과일 등도 깨끗이 씻어 섭취하고, 가능한 날 음식은 삼가야한다며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를 당부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영원한 오빠’ 조용필 21일 환갑

40여 년간 ‘영원한 오빠’로 불리고 있는 조용필이 21일로 환갑을 맞는다.

1968년 록그룹 에트킨스로 데뷔한 그는 1980년 ‘창밖의 여자’ ‘단발머리’ ‘돌아와요 부산항에’ 등이 수록된 1집을 발표한 이래 ‘못잖았다 피로라’, ‘허공’, ‘칼리만자로의 표범’, ‘마도요’ 등 수많은 히트곡으로 국민의 사랑과 후배 가수들의 존경을 받았다.

한국의 ‘가왕(歌王)’으로 불리는 조용필의 환갑을 맞아 후배 가수들과 공연 스태프가 조출한 축하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전하자 조용필이 한사코 만류했다고 한다.

조용필 기획사인 YPC프로덕션은 “조용필씨는 양력 생일을 지내는데, 평소에도 생일이 큰 의미를 안 둔다”며 “멋집 주년, 멋세 등을 말하는 게 오히려 나이들어 보인다면 숫자에 연연하지 않아 왔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에서 휴식을 하고 돌아온 조용필은 올해도 어김없이 공연 무대에 오른다. 평소 TV에 출연하지 않는 그는 5월 대규모 공연과 지방 전국투어 등의 계획을 세웠다.



/연합뉴스

배우 이범수 14살 연하와 5월 결혼

배우 이범수(41)가 오는 5월 결혼한다.

이범수는 오는 5월22일 서울 광장동 W서울워커히호텔에서 가수 ‘비’의 영아 선생으로 알려진 14살 연하 이윤진씨와 백년가약을 맺는다고 지난 10일 말했다.

이범수는 지난 2008년 영아 공부를 위해 이씨를 만난 후 자연스럽게 연인관계로 발전했으며 지난해 11월 교제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범수는 지난 2004년 대학동기 박모씨와 결혼했지만 5개월 만에 이혼했다.



/연합뉴스

배우 하정우 개인전 열고 화가 데뷔

배우 하정우가 첫 번째 그림 전시회 ‘하정우 개인전’을 열고 화가로 데뷔했다.

하정우의 소속사 N.O.A는 ‘하정우 개인전’이 경기 양평 덕터 박 갤러리에서 오픈해 내달 4일까지 진행된다고 11일 전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하정우가 영화 촬영하는 틈틈이 자신이 연기한 캐릭터 이미지와 심리 상태를 형상화한 40여 편의 작품이 선보인다.

하정우는 “처음 하는 전시회라 낯설고 부끄러운 데 많은 분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무한한 열정을 물려주신 사랑하는 아버지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젊음과 열정을 낭비하지 않고 어떤 분야에서든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금나, 하버드·존스홉킨스 대학원 동시 합격

미국 하버드대와 MIT에 동시 합격해 화제를 모았던 2002년 미스코리아 진 금나(27)가 하버드대와 존스홉킨스대 대학원 박사과정에 장학생으로 합격해 눈길을 끈다.

금나는 지난해 9월부터 컬럼비아대 영양대학원 석사과정을 공부해오다 최근 하버드대 보건대학원과 존스홉킨스 보건대학원 질병역학 부문, 동대학 의대 세포분자외과 등 3개의 박사과정에 지원해 전부 합격했다. 금나는 하버드대와 존스홉킨스 의대에 5년 전액 장학금(full funding)으로 선발돼 등록금 면제는 물론 매달 일정액의 생활비까지 지원받는다. 한편 금나는 다음달 15일 까지 어느 대학으로 갈지 결정해야 한다.



/연합뉴스

“규모 막대한 지자체 공기업 경영 효율 높이겠다”

임우진 前 광주부시장, 자치경영평가원 이사장 취임

“공무원으로서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을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국가와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우진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지난 달 10일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장을 끝으로 31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했다. 그는 지난 1일 자치단체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및 진단, 교육 등을 맡고 있는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이사

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은 지난 1992년 내무부 산하 재단법인으로 설립됐으며 2002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됐다.

정년을 3년 넘게 남기고 공직에서 물러난 임 이사장은 “5급 사무관으로서 시작해 고위공무원까지 지내면서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 아쉬운 점은 없다”며 “다만 최근 지역출신 고위공직자들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어 흑역 지역 발전에



막대하다”며 “이들 공기업 및 출연·출자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선도하고 평가하며, 이를 지역민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으로 연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임 이사장은 또 “고향인 광주가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선진도시가 되는 데 힘조하겠다”며 “민주성지인 광주가 지방자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다른 도시보다 앞설 수 있는 전환점의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행정고시 22회 출신인 임 이사장은 지난 1979년 공직에 입문한 뒤 광주시 기획관리실장 등 17년을 광주에서 근무했으며, 이후 행정안전부 지방행정혁신관, 정보화전략실장, 지방행정연수원장 등을 역임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차정환 동신대 교수

사진집 ‘시간여행’ 발간

차정환 동신대 교수(산업디자인학과)가 전통과 향수가 물씬 풍겨나는 흑백 사진 작품들을 모은 사진집 ‘차정환의 시간여행’을 발간했다. 차 교수는 사라져가는 농촌의 문화를 주제로 한 작품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온 향토 사진작가로, 1995년 동신대학교 교수로 부임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김학준 회장 고문 추대

동아일보 정기 주총

동아일보는 10일 제84기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김학준 회장을 고문으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또 최병호 상무이사는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배인준 논설주간 이사는 주필 상무이사로 선임했다.



/연합뉴스

내방

▲김대식 (한나라당 전남지사 예비 후보)씨 ▲김기룡 (전남도당 위원장)씨

전남대·목포해양대 교육·연구 교류 협정 체결



전남대학교(총장 김문수·오른쪽)와 목포해양대학교(총장 안영섭·왼쪽)는 최근 전남대 본부 접견실에서 양 대학의 교육 및 연구 분야의 상호 교류·협력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전남대 제공)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화측

▲강종백·홍순의씨 장남 경원군 송영순씨 사내 문 설양=13일(토) 오후 1시50분 삼부지구 조선컨벤션 웨딩 1층(춘추관)

향우회

▲재광보성회 향우회(회장 김선주)=12일(금) 오후 6시30분 송암가든. 062-674-1000. 집결지: 구 전남도청앞 오후 6시.

중친회

▲진주강매 광주전남총회(회장 강평원)=13일(토) 오전 11시 광주향교 유림회관. 062-228-3368, 062-672-7008. ▲함평노씨 한림공 중친회(회장

노병철) 정기총회=16일(화) 오전 11시 광주상록회관 3층. 018-627-0333.

▲가락 광산구 친친회(회장 김명호) 월례회=19일(금) 오전 11시 종친회관 2층. 062-944-1951.

알림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아동상담소 무료 상담=국내 입양 상담. 미혼 소 상담(24시간 출장 상담도 가능). 미혼소 시절 입소 안내. 062-227-8877.

▲비둘기 가정상담소 무료 상담=인터넷 및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은 예약제. 문의 062-652-1366, 062-434-1366 www.gene-korea.com

▲광주생명의 전화 무료 상담=24시 전화 상담 전국 공통 1588-9191, 광주 062-223-9191. 면접 상담은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5

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 자들에게 상담을 통한 정서적 지지와 격려 등.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지부 검찰청 민원실 2층.

▲광주·전남해바라기 아동센터 무료 상담 및 의료·법률 지원=성폭력 피해를 입은 13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에게 장애인을 대상으로 긴급구조, 의료·법률 지원 및 심리 치료 등 원스톱 서비스. 062-232-1375, www.forchild.or.kr

▲(사)우리문화예술진흥원 사무직원 채용=문화예술관련 전공자, 컴퓨터 활용 능력자 우대. 12일 접수 마감. 계약직, 월 90만원(주 40시간), 근무의 초과 수당 지급. 062-523-0474.

▲생활 체육 배드민턴 회원 수시 모집=광주 북성중학교 오전반 5시 30분~7시30분. 011-618-7882.

▲불소이 무용학원 수시모집=발레·재즈·방송댄스 등 초·중·고등부 및 성인·취미반 모집, 차량운행. 062-955-4200.

▲그림그리기, 백일장 참가안내=13일(토) 2010 광주시자원봉사자연합회 부대행사 그림그리기(유치,초등학생), 백일장(중·고등학생) 김대중컨벤션센터 참가접수 및 문의 광주시자원봉사센터 062-613-5586. ▲거동 불편한 어르신 모집=65세 이상 어르신 중 거동 불편한 분을 사랑과 섬김의 정신으로 목욕·물리

치료 등 제공, 참·더불어 재가노인 복지센터(062-266-6321~2)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자연건강요법 강좌(자연치유력 향상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3월2일 개강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12시, 062-230-7700, 010-6271-8475.

▲형제축구클럽=축구에 관심있으신분 누구나 환영 회원 수시모집 (두달동 거주자 대 환원) 010-8216-8585.

▲북구 골든벨 축구클럽 동호회원 모집=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분. 20세 이상, 선수출신 환영. 010-3608-1060.

▲사단법인 호시랑명 봉사단=품교육에 관심있는 회원 교육생 모집. 매주 금요일. 062-369-1230.

부음

▲김운현(광주지방변호사회 변호사)씨 별세 재영·진영·필승씨 부친상=발인 13일(토) 순천의료원 장례식장 5호 특실. 061-751-0538.

▲장인순씨 별세 임정근·희숙·금

심씨 모친상=12일(금)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5분향소. 062-231-8905.

▲김정웅씨 별세 준호·미경·윤경씨 부친상=발인 12일(금)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6분향소. 062-231-8906.

▲박형구씨 별세 래현·동재·래철·순례씨 부친상=발인 12일(금)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최양금씨 별세 정희일·희진·화자·연숙씨 모친상=발인 12일(금) 무등장례식장 203호. 062-515-4488.

마음까지 편안함 - 금호장례식장 227-4000. 故 정갑순님(여/94세) 주/부: 김경희/서:정민, 박승순. 장례: 13일(토) 오전 11시. 장지: 화순현천염.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약속! 프리드 대한민국장례문화. 현대중앙상조가 책임지겠습니다. 기입문의 1566-4499. 현대중앙상조 전속모범 노주현